2026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

☐ **회의일시 :** 2026.11.10. (화) 14:00

☐ **회의장소 :** 교무회의실 (M1 310)

☐ **출석현황**

출석위원	6명	장기원(위원장)	교원
		김진관	교원
		정동원	직원
		조남호	직원
		김건호	학생
		정승재	외부전문가
불참위원	4명	조성훈	직원
		조민호	교원
		김예형	학생
		배현원	외부전문가

☐ **회의순서**

○ 성원보고 · 개회선언

○ 회의안건 및 결과

○ 폐회

☐ **회의내용**

○ **성원보고 · 개회선언**

간사는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, 위원장은 2026학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의 개회를 선언하다.

○ **회의안건 및 결과**

안건명	결과
임의적립금 정기예금 해지·재예치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(안) 심의	원안 통과

- 안건 : 임의적립금 정기예금 해지·재예치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(안) 심의

·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.

· 간사는 각종 임의적립금의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결과를 보고하다 아울러 2026년 및 2027년 중 해당 적립금의 사용 계획이 없고 자금 인출 요청이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기존 적립금을 해지하고, 해지이자 및 2025회계연도 선급법인세 환급금, 대외협력실에서 요청한 2026년도 발전기부금 총 3.5억을 추가하여 총 22억에 대해 전액 재예치하는 자금 운용 계획을 심의하는 건이라고 설명하다.

· 간사는 최근 시장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자금 운용 방안을 분석한 결과, 정기예금 전액 예치안 (A안)이 정기예금과 국채 분산투자안(B안)보다 예상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을 설명하다.

· 또한 유동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기예금은 1년 단위 재예치 방식으로 매년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없이 인출 및 조정이 가능한 반면, 국채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중도 매각 시 금리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다.

· 이에 따라,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, 시중 금융기관별 금리를 비교한 결과, 2026년 11월 6일 기준 교직원공제회 정기예금 금리가 연 4.20%로 시중은행보다 가장 높다고 설명하다. 다만 교직원공제회 정기예금의 가입 단위가 1억 원인 점을 고려하여, 적립금 용도별로 1억 원 단위 자금은 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하고, 1억 원 미만의 잔여 자금은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분할 예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다.

· 외부 전문위원 (정승재 회계사)은 타 적립금 실태점검 시 이율이 높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적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대학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교직원 공제회 정기예금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, 안건 보고 내용대로 수립된 자금 운용계획이 안정성과 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.

· 위원장은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묻고, 위원 전원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.

○ **폐회**

이상 안건 심의를 종료하고 15:0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2026. 11. 10.

기금운용심의회

위원장 : 장 기 원

위원 : 조 성 훈 (인)

위원 : 김 진 관

위원 : 조 민 호 (인)

위원 : 정 동 원

위원 : 조 남 호

위원 : 김 건 호

위원 : 김 예 형 (인)

위원 : 배 현 원 (인)

위원 : 정 승 재 (인)